

군산 내항 일원 국가유산 '재조명'

시, '2025년 국가 유산 미디어아트' 공모 선정... 사업비 10억4000만원 확보 미디어아트 활용한 지역 국가 유산의 역사적 가치 담은 콘텐츠 육성 기화

군산시는 19일 국가유산청 주관 '2025년도 국가 유산 미디어아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사업비(국비·도비) 10억4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가 유산 미디어아트'는 독창적인 이야기와 첨단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해 국가 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선보이는 국가유산청의 공모 사업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군산시는 2025년 군산 내항 일원에서 국가 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게 됐다.

군산시 관계자는 "미디어아트를 통해 군산 지역의 국가 유산을 쉽게 알리고 즐길 수 있게 되었다"면서 "새로운 방식의 국가 유산 야간 콘텐츠를 육성할 기회를 얻게 된 것 같다"라고 전했다.

특히 군산시는 국가 유산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최초로 선정돼 의

미가 깊다.

그간 미디어아트 공모사업은 세계유산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도내에서는 익산, 고창이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사업 대상이 국가 유산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군산시는 지난 7월 공모 신청을 통해 사업에 응모했다.

최종적으로 총 23개 지자체가 접수했고, 국가유산청은 1차 서류심사에서 12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어 2차 발표가 8월 28일에 실시됐으며, 최종적으로 군산시를 포함 경주시, 고령군, 진주시, 제주시, 철원군, 통영시 등 8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군산시는 '2025년 미디어아트 사업'을 '역사의 발자국을 따라서'라는 주제로 창작 미디어아트 퍼포먼스가 결합된 공연으로 재현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은 과거 개항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적 거리를 걸은 군산시민의 역사를 표현하고 현재를 통과하고

다가올 미래를 담아내며, 미디어아트 기술 및 기법과 공연을 통해 일제강점기 수탈에 대한 저항의 역사를 국가 유산에 그려 넣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군산시는 이 모든 역사를 담아낸 콘텐츠를 한 점의 작품으로 제작하여 공간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국가 유산 상징성 및 관람 방식을 제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시가 미디어아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그간 국가 유산 야행 등 문화유산 활용사업의 추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군산시는 이번 사업을 2025년 8월 열리는 '군산 국가 유산 야행'과 함께 선보여 군산의 여름을 대표하는 야간 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야구장 찾아 지역 축제 알린다

28일까지익산데이(Day) 진행... 야구장 내 전광판 등 활용 홍보

익산시가 전국적인 야구 흥행에 맞춰 야구장을 찾아 지역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케이티 위즈(KT)의 홈경기장인 수원 케이티(KT)위즈파크에서 '익산데이(Day)'를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kt wiz 2군 연고지인 익산시는 kt wiz 구단과 상호 협약을 통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익산데이(Day)'는 지난 10일 시작해 오는 28일까지 수원에서 치러지는 11경기 동안 야구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익산시 홍보를 진행하는 행사다.

야구장 내 전광판 등을 활용해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익산 마루사지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등 주요 축제와 시정 홍보를 진행한다. 또한 주요 스포츠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도 진행돼 전국에 익산시를 효과적으로



알릴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7일 경기에는 익산시 리미아 구단을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 초청한다. 프로 선수들의 수준 높은 경기를 관람하며 야구 꿈나무들에게 소중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전시회

내달 15일까지 운영

함양현 수령 명단 기록, 일제강점기 여고생의 일기장 등 익산시민들이 남긴 삶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마련된다.

익산시는 '공간으로 추억하는 당신의 익산'을 주제로 '제4회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전시회'를 익산 예술의전당 미술관 1층 전시실에서 10월 15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전시회는 익산 내 여러 공간에서의 추억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마련됐으며, 제4회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참여자 87명의 소중한 기록물 3,148점이 전시된다.

전시 공간은 관람하는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주제별로 모인 기록물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생활, 교육, 문화, 제도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생활 공간은 토지매매 문서, 일기, 통장, 편지 등을 선보이고, 교육 공간은 상장, 졸업장, 교과서, 학생사진 등이 전시됐다. 문화 공간은 문학, 음악, 예술 분야의 기록물과 종교 관련 기록물을 만나볼 수 있다. 끝으로 제도공간에서는 국가에서 발행된 책자 등이 전시됐다.

기록물 공모전 수상작인 △합라노소에서 작성한 함양현 선상안 △경주 김씨 문중의 김청의 흥패와 여산군수로 임명받은 교지 △일제강점기 여고생의 일기장과 번역본을 비롯해 전북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기세배놀이의 시연 과정을 담은 익산 농기세배도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2024 새만금 오토레저 캠핑쇼' 개최

27~29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 50여개 국내외 캠핑 브랜드 참가 '새만금 로컬 페스타' · '캠핑 페스타' 동시 진행... 문화 공연 등 다채

군산시는 오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이하 GSCO)에서 '2024 새만금 오토레저캠핑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산시가 주최하고 GSCO가 주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가 후원하는 새만금 오토레저캠핑쇼는 올해 5회째 개최되는 호남지역 최대 규모의 캠핑 축제다. 국내외 캠핑 브랜드가 참가하는 행사는 호남지역 최대 규모의 캠핑 축제다. 또한 레저캠핑에 관심 있는 수많은 캠핑애호가들이 찾는 지역 대표 종합 레저박람회로 각광을 받고 있다.



'2024 새만금 오토레저캠핑쇼'는 올해 5회째 개최되는 호남지역 최대 규모의 캠핑 축제이다.

이색 행사를 준비했다.

MZ세대에게 인기인 캠핑+피크닉에서 즐길 수 있는 감성 캠핑용품, 커피용품 등을 선보이면서 새로운 캠핑의 즐거움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레저차량, 레저보트 등의 최근 유행 및 신제품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캠핑카 구역과 캠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먹거리 간

편식(밀키트)과 바로 요리 세트 등의 캠핑푸드 구역도 마련하였다.

3일 동안 약 50여 개의 국내외 유명 브랜드가 함께하는 경품 행사와 문화 공연, 불꽃 쇼 등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눈여겨볼 만하다

먼저, 군산 지역의 콘텐츠와 연계해 Local Liquor(캠핑Bar페스타), Local Culture(ALL페스타), Local Market(버룩시장)이 함께 어우러진 '새만금 로컬 페스타'도 동시 개최 예정이다.

이외에도 △최근 MZ세대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있는 지역 주류와 바베큐를 즐길 수 있는 캠핑Bar페스타 △지역 예술가들이 펼치는 ALL페스타 in 군산 △지역 판매자들과 함께하는 캠핑&피크닉 버룩시장까지 특색있는 지역 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다.

특히, GSCO 옥외전시장에서 캠핑 50팀이 2박 3일간 '캠핑페스타'를 개최해 박람회와 참가한 캠핑 애호가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지역민만을 위한 행사가 아닌 다른 지역 관광객 대상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강화할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해양 레저, 낚시 등 관련 레저산업의 관광수요를 창출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금강도서관, 26일 배순탁 작가 강연 행사

군산시 금강도서관은 26일 저녁 7시에 '배철수의 음악캠프' 배순탁 작가의 강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준비된 이번 강연은 '음악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아바(ABBA), 퀸(Queen), 콜드플레이(Coldplay) 등 모두가 좋아하는 명곡을 감상하며, 음악 속에 숨겨진 뜻이 이야기와 음악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음악 방송 작가이자 음악 평론가로 활약하는 배순탁 작가는 많은 방송에서 보여준 입담과 음악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전달하며 귀가 즐거운 가을 저녁을 선사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립도서관 누리집(lib.gunsan.go.kr)을 참고하거나 금강도서관(☎063-454-567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21일 청년축제 '청년이 청년에게' 개최

군산시는 오는 21일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근대역사박물관 대형주차장 일원에서 '젊음으로 가득한 청년들이 바리던 하루'라는 주제로 청년축제 '청년이 청년에게'를 개최한다.

2024년 청년의 날(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군산시, 청년플(청년센터), 오달(청년단체)에서 공동주최하고 청년축제기획단에서 주관한다.

프로그램은 △2024 군산 새만금 댄스 페스티벌 △군산 출신 전국 댄스 최강자 클럽의 댄스공연 △영양배우이며 코미디 쇼 SNL에 출연하는 김민교의 토크쇼 △가수 케이시, 고유진, 체리필터의 무대공연이 이어진다.

가장 주목받는 공연은 '2024 군산 새만금 댄스 페스티벌'로 케이팝과 스트리트댄스로 나누어 진행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